

## 마태오 복음서 21장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다**(마르 11,1-11; 루카 19,28-38; 요한 12,12-19)

예수님께서 열렬한 환영 속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써 즈카리야의 예언(1-5절)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신다.<sup>1)</sup>

- 1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올리브산 벧파게에<sup>2)</sup> 다다랐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며
- 2 말씀하셨다. “너희 맞은쪽 동네로 가거라. 매여 있는 암나귀와 그 결의 어린 나귀를 곧바로 보게 될 것이다. 그것들을 풀어 나에게 끌고 오너라.
- 3 누가 너희에게 무어라고 하거든, ‘주님께서 필요하시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그러면 그것들을 곧 보내 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주님’이라 칭하심으로써, 당신이 온 세상을 구원하실 주님이심을 보여주신다.

- 4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일이 일어난 것이다.
- 5 “딸 시온에게 말하여라.  
보라, 너의 임금님이 너에게 오신다.  
그분은 겸손하시어 암나귀를,  
짐바리 짐승의 새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sup>3)</sup>

- 1) 부자들이나 권력가들이 타는 짐승이 아니라, 이스라엘 선조들이 이용하던 평범한 짐승을 타고 입성하신다.<sup>4)</sup>
- 2) 말은 전쟁의 동물이요 나귀는 평화의 동물이다. 이방인이나 권력가들은 말을 탔고 나귀를 타지 않았다. 나귀는 멸시를 당하는 짐승이었다. 주님께서 나귀를 타신 것, 그것도 어미에게 의존하는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은 주님의 겸손을 나타낸다.

---

1) 주석 성경, 마태오 복음서, 130쪽, 각주 1.

2) 벧파게는 올리브 산 동쪽 비탈에 자리 잡은 곳으로, 현재는 케르로엣 투르라고 불린다(위, 각주 2).

3) 즈카 9,9 : 딸 시온아, 한껏 기뻐하여라. 딸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보라, 너의 임금님이 너에게 오신다. 그분은 의로우시며 승리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겸손하시어 나귀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4) 위, 각주 5.

창세 49,11 : 그는 제 어린 나귀를 포도 줄기에, 새끼 나귀를 좋은 포도나무에 매고 포도주로 제 옷을, 포도의 붉은 즙으로 제 겹옷을 빨다.

판관 5,10 : 흰 나귀를 타고 가는 이들이 용단 위에 앉은 이들이 길을 걸어가는 이들이, 노래하여라.

- 6 제자들은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하였다.
- 7 그들은 그렇게 암나귀와 어린 나귀를 끌고 와서 그 위에 겹옷을 펴 놓았다. 예수님께서 그 위에 앉으시자,

- 1) 어린 나귀이기에 아직 안장이 없었으므로, 대신해서 겹옷을 엮은 것이다.
- 2) 이동을 위해서는 나귀 한 필 정도는 있으실 만한데, 예수님은 당신 소유의 나귀 한 필도 없었다. 즉 겸손하고 가난한 삶을 사셨다.

- 8 수많은 군중이 자기들의 겹옷을 길에 깔았다.<sup>5)</sup> 또 어떤 이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겹옷이나 나뭇가지를 길에 깔다는 것은 임금에 대한 존경의 표시이다.

- 9 그리고 앞서가는 군중과 뒤따라가는 군중이 외쳤다.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지극히 높은 곳에 호산나!”
- 10 이렇게 하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도성이 술렁거리며, “저분이 누구냐?” 하고 물었다.
- 11 그러자 군중이 “저분은 갈릴래아 나자렛 출신 예언자 예수님이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 1) 호산나는 히브리말로 ‘구원을 베푸소서.’라는 뜻이지만, ‘돕다, 도와주다’라는 뜻도 담고 있기에 임금께 외치는 청원으로 쓰인다. 그러다가 유대교에서는 환호성으로 쓰였다.
- 2) 예수님께서서는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이다.
- 3) 예수님 삶 자체가 온 도성 아니 온 세상을 뒤흔드는 사건이다.

**성전을 정화하시다**(마르 11,15-19; 루카 19,45-48; 요한 2,13-22)

- 12 예수님께서서는 성전에 들어가시어, 그곳에서 사고팔고 하는 자들을 모두 쫓아내시고, 환전상들의 탁자와 비둘기 장수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셨다.
- 13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집은 기도의 집이라 불릴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너희는 이 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드느구나.”

---

5) 2열왕 9,13 : 그러자 그들은 재빨리 저마다 제 겹옷을 벗어 예후의 발밑 층계에 깔고는 나팔을 불며, “예후께서 임금님이 되셨다!” 하고 외쳤다.

- 1)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화 하시는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먼저 성전의 제사를 폐지하는 권한을 행사하신 것이다. 그리고 성전의 정화 곧 역사적으로 여러 침략으로 더럽혀진 성전을 정화하시는 상징적인 행위도 포함한다. 또한 환전상들이나 상인들의 그릇된 상거래를 질타하시는 것이다.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은 제물을 사거나 성전 세를 내려고 환전상들에게서 돈을 바꾸었는데, 환전상들과 상인들은 이교인들의 뜰 회랑에만 있어야 했다.<sup>6)</sup>
- 2) 예수님께서 성전을 본래의 기능인 ‘기도하는 집’으로 돌려놓으신다.

**14 그때에 성전에서 눈먼 이들과 절름거리는 이들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 주셨다.**

눈먼 이들과 절름거리는 이들 곧 병자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다.

- 15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들을 보고, 또 성전에서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하고 외치는 아이들을 보고 불쾌해하며,
- 16 예수님께 “저 아이들이 무어라고 하는지 듣고 있소?”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당신께서는 아기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습니다.’라는 말씀을 너희는 읽어 본 적이 없느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본 순수한 아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본다. 곧 하느님께서 아이들의 외침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시는 것이다. 그러나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은 불쾌하게 여긴다. 곧 예수님의 수난이 가까웠음을 보여준다.

**17 예수님께서 그들을 두고 성을 나와 벳타니아로 가시어 그곳에서 밤을 지내셨다.**

큰 축제 때에 예루살렘으로 순례 온 사람들은 성 밖에서 밤을 지내는 관습이 있었다.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다(마르 11,12-14.20-25)**

- 18 예수님께서 새벽에 성안으로 되돌아가실 때에 시장하셨다.
- 19 마침 길가에 있는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보시고 가까이 가셨다. 그러나 잎사귀 밖에는 달리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으므로 그 나무를 향하여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너는 영원히 열매 맺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자 나무가 즉시 말라 버렸다.
- 20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서, “어째서 무화과나무가 즉시 말라 버렸습니까?” 하

6) 앞, 131쪽, 각주 13 참조.

고 물었다.

- 1) 잎이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는, 아름답게 지어지기는 하였지만, 종교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여 단죄받는 성전을 가리키는 상징일 수도 있다.<sup>7)</sup>
- 2) 무화과나무는 열매가 먼저 생긴 후 잎사귀가 난다. 그러므로 잎사귀가 있다는 것은 열매가 이미 열렸다는 뜻이 된다. 그러나 이 나무의 경우는 비정상적이다. 열매가 열리지 않은 채 잎사귀만 무성하였다. 이것은 올바른 신앙에 따른 선한 행위 없이 겉으로만 그럴듯한 형식주의를 나무라시는 것이다.

- 21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나무에 일어난 일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서 저 바다에 빠져라.’ 하여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sup>8)</sup>
- 22 그리고 너희가 기도할 때에 믿고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무화과나무 사건을 통해 믿음에 찬 기도의 힘을 가르치신다.

#### 예수님의 권한을 문제 삼다(마르 11,27-33; 루카 20,1-8)

- 23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가르치고 계실 때,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요? 그리고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
- 24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 묻겠다. 너희가 나에게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해 주겠다.
- 25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온 것이냐? 하늘에서냐, 아니면 사람에게서냐?” 그들은 저희끼리 의논하였다. “‘하늘에서 왔다.’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느냐?’ 하고 우리에게 말할 것이요.
- 26 그렇다고 ‘사람에게서 왔다.’ 하자니 군중이 두렵소. 그들이 모두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니 말ियो.”
- 27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모르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 1) 이 논쟁은 예수님의 “권한”에 대한 결정적인 질문이 제기한다. 유다교에서는 어떤 특별한 사람이 권위와 권한을 행사하면, 그것들은 그 사람의 개인적인 특

---

7) 위, 132 각주 19 참조.

8) 1코린 13,2 :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깨닫고 산을 옮길 수 있는 큰 믿음이 있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권으로 여겨져 용납된다. 그러나 여기서는 예수님의 권한이 어디서 오느냐는 것이다. 곧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 하느님이오, 사탄이오, 아니면 다른 사람이오. 당신 자신이오?’라는 질문이다.

- 2) 예수님께서서는 지혜롭게 대답하심으로써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의 간교하고 악의에 찬 위선을 드러내신다. 이들은 세례자 요한도 인정하지 않고, 세례자 요한이 증언한 예수님도 인정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권한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다.

## 두 아들의 비유

- 28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하여라.’ 하고 일렸다.  
29 그는 ‘싫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지만, 나중에 생각을 바꾸어 일하러 갔다.  
30 아버지는 또 다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대답하였지만 가지는 않았다.  
31 이 둘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였느냐?” 그들이 “맏아들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32 사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의로운 길을 가르칠 때,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지만 세리와 창녀들은 그를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생각을 바꾸지 않고 끝내 그를 믿지 않았다.”

- 1) 세리들과 창녀들은 처음에는 맏아들처럼 처음에는 하느님의 뜻을 저버렸으나, 요한이 옳은 길을 외칠 때 회개하였다. 그러나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은 다른 아들처럼 하느님을 섬긴다고 하였지만, 회개하지도 않았다. 누가 하느님의 뜻을 따른 자인가?  
2) 겉으로만 위선자들처럼 생활해서는 안 된다. 늘 회개하는 생활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따르는 삶이어야 한다.  
3) 신앙생활은 처음보다 끝이 그리고 입술보다 실생활의 열매가 더 중요하다.

## 포도밭 소작인의 비유(마르 12,1-12; 루카 20,9-19)

- 33 “다른 비유를 들어 보아라. 어떤 발 임자가 ‘포도밭을 일구어 울타리를 둘러치고 포도 확을 파고 탑을 세웠다.’ 그리고 소작인들에게 내주고 멀리 떠났다.  
34 포도 철이 가까워지자 그는 자기 몫의 소출을 받아 오라고 소작인들에게 종들을 보냈다.  
35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들을 붙잡아 하나는 매질하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을 던

져 죽이기까지 하였다.

36 주인이 다시 처음보다 더 많은 종을 보냈지만, 소작인들은 그들에게도 같은 짓을 하였다.

37 주인은 마침내 ‘내 아들이야 존중해 주겠지.’ 하며 그들에게 아들을 보냈다.<sup>9)</sup>

38 그러나 소작인들은 아들을 보자, ‘저자가 상속자다. 자, 저자를 죽여 버리고 우리가 그의 상속 재산을 차지하자.’ 하고 저희끼리 말하면서,

39 그를 붙잡아 포도밭 밖으로 던져 죽여 버렸다.

40 그러니 포도밭 주인이 와서 그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41 “그렇게 악한 자들은 가차 없이 없애 버리고, 제때에 소출을 바치는 다른 소작인들에게 포도밭을 내줄 것입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자,

42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읽어 본 적이 없느냐?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sup>10)</sup>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네.’

43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 너희에게서 하느님의 나라를 빼앗아, 그 소출을 내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44 그리고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부서지고, 그 돌에 맞는 자는 누구나 으스러질 것이다.”<sup>11)</sup>

45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은 이 비유들을 듣고서 자기들을 두고 하신 말씀인 것을 알아차리고,

46 그분을 붙잡으려고 하였으나 군중이 두려웠다. 군중이 예수님을 예언자로 여겼기

---

9) 1요한 4,9 :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느님께서 당신의 외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살게 해 주셨습니다.

10) 이사 28,16 : 그러므로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시온에 돌을 놓는다. 품질이 입증된 돌 튼튼한 기초로 쓰일 값진 모퉁잇돌이다. 믿는 이는 물려서지 않는다.

사도 4,11 : 이 예수님께서 ‘너희 집 짓는 자들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 이십니다.

1베드 2,4-8 :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살아 있는 돌이십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지만 하느님께는 선택된 값진 돌이십니다. 여러분도 살아 있는 돌로서 영적 집을 짓는 데에 쓰이도록 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느님 마음에 드는 영적 제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치는 거룩한 사제단이 되십시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시온에 돌을 놓는다. 선택된 값진 모퉁잇돌이다. 이 돌을 믿는 이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믿는 여러분에게는 이 돌이 값진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하는 그 돌이며, 또한 “차여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걸려 비틀거리게 하는 바위”입니다. 그들은 정해진 대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그 돌에 차여 넘어집니다.

11) 다니 2,34-35 : 임금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실 때,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떨어져 나와, 쇠와 진흙으로 된 그 상의 발을 쳐서 부수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쇠, 진흙, 청동, 은, 금이 다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의 거처럼 되어 바람에 날려가 버리니, 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을 친 돌은 거대한 산이 되어 온 세상을 채웠습니다.

**때문이다.**

- 1) 이 비유는 사람의 아들 곧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운명에 관한 것이다.
- 2) 포도밭 주인은 종들을 두 번씩이나 보내고 마침내는 아들까지 보냈지만 자기 몫을 받지 못한다. 그리하여 주인은 제때 포도를 바칠 다른 소작인들에게 그 포도밭을 내줄 것이다.<sup>12)</sup>
- 3) 모퉁이의 머릿돌에 부딪혀 부스러지지 않으려면 그분 편에 서야 한다.<sup>13)</sup> 예수님 편에 서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 4) “포도밭”은 역사적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를 가리킨다. 그리고 “소작인들”은 이 백성의 우두머리들이 아니라 백성 전체를 뜻한다. “다른 소작인들”은 “소출을 내는 민족”(43절)을 가리킨다. 이 민족은 ‘다른 민족들’도 아니고, “거룩한 민족”도 아니라, 믿는 이들의 새로운 ‘세대’를 가리킨다.<sup>14)</sup> 곧 교회를 가리킨다.
- 5) 오늘날 교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제때 소출을 내는 삶 곧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

12) 앞, 133쪽, 각주 28

13) 위.

14) 위, 각주 32.34.